



#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치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게시판이나 ID: dgress@mail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 ‘준비되지 못한 학교’의 모습

### 계속되는 분반...수업 지장

### 미래지향적 교육 실천하는 학교돼야

쌀쌀하고 차가웠던 3월의 늦겨울 추위는 지나고 꽃피고 새우는 4월이 왔다. 3월의 학교분위기는 시작한다는 의미로서 치러지는 행사, 졸업식, 개강과제, 입학식 등으로 해를 들뜬 분위기가 있다. 4월의 중순인 지금 4월의 자연이 우리를 밖으로 나오라는 유혹을 뿌리치게 하는 건 몇몇 일 있으면 시작될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보다 학교 도서관을 찾는 발걸음들이 더 많아졌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학기가 시작된 지 한달 반이 넘도록 많은 학우들이 교양과목의 계속되는 분반으로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정상적인 수업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도 어떤 교양과목은 아직도 학생이 많아 수업을 할 수 없어서 강의실이 일주일마다 바뀌고 교수님이 바뀌는 등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학교측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학은 96년부터 실시된 학부제,

교양과목의 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대비를 했어야 했다. 대학은 어떤 기관보다 사회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국제화에 대비하기위해 외국어를 공부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짐으로 문화적인 생활을 많이 즐기려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학교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을 깨우쳐주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와 같은 문제들은 학생들에게 '준비되지 못한 학교'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국제화, 경쟁력 있는 사회에서 참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은 학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학교만이 훌륭한 인재를 배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지형 (아간강좌 관공경영학과)

## 힘빠진 3학년에서

## 다시 열정적인 3학년으로

### 넓은 안목으로 진정한 인생의 가치 느껴야

어느덧 96학번의 새 동생들을 맞이하였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그 보다 더 작은 시간의 대학 생활이 내게 남아있다. 1학년때인가? 학교 교지에 불교 아동학과에 들어오게된 과정과 나의 마음을 서투른 글로 실었던 적이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글을 썼던 그때에 비해 지금의 나는 왠지 옛날의 패기와 젊어울랐던 열정들이 조금은 식어버린듯한 느낌을 감출수가 없다. 단지 안정됐지만 마음과 순간순간 깨어있어 헛된 것을 하지 않는 나이 먹은(?) 3학년이다.

어쩌면 4학년 선배들에게 짐세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기는 것 보다는 더 알차고 후회없이 남아있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서서히 졸업후의 인생에 대해서도 준비할 때 인것 같다. 나도 새내기였을때가 있었다. -

지금도 항상 새내기 같고 어디에서든 96학번으로도 얼마든지 통한다 - 그런데 2년 전의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지 다시 묻고 싶다. 1학년 초 '머피의 법칙'의 노래 가사처럼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따분한 음악이 아닌 따분한 인생이 너무 싫어서 진실로 내게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미친듯이 찾아 다녔었다.

좌절과 희망을 방황과 증심있는 삶을 왔다갔다 하며 드디어 내 인생의 한 축을 찾게 되었다. 그 후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물두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 자신감과 아름다움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가르침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의 패기와 열정이 조금은 시들고 인생에 대해 자꾸 계산적이 되어가는 것 같다.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어쩌면 발광(?)했던 1·2학년때 보다 지금의 이상태에서 내 마음 깊

숙히에 삶에 대한 열정과 원력이 다시 솟아나면 좋겠다.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삶에 대한 열정과 원력!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중심이며 힘이다.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 의미있게 한다는 것, 후회없이 한다는 것. 그것들의 전제는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우물을 파는 게구리처럼 내주면서 세계로 아니 우주로 눈을 돌려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느껴보는 것이다.

열정적으로 큰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일 것이다. 이제, 힘 빠지고 쉽게 지치는 3학년에서 예전의 내 모습처럼 당차고 열정적인 나로 다시 태어난다. 멋진 삶을 위해서.

이수진 (불교문화대 불교아동학과)

## 기본학습권과 자치공간보장 요구

### 아간강좌 발전에 대한 논의구조 필요

지난 13일 학자투 선포식이후 제 12대 아간강좌 총학생회는 8개항의 단위요구안을 중심으로 아간강좌의 정상화와 질적발전을 이루기위해 '기본학습권보장과 자치공간확보를 위한 절거농성'을 15일 현재 33일째 하고 있다. (작년 신설된 중문·신방·광고학과와 경상학부·반도체학과와 전산통계학부)

이는 그동안 학교당국이 무원칙하고 일방적인 학사행정으로 근로민중교육의 확대라는 대의명분만을 내세워 아무런 대안없이 증명, 증과만을 거듭해온데이어 올레는 무원칙한 학부제의 실시로 아간강좌를 위협한 수준으로까지 파행적으로 이끌어온 것에 대한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아간교육의 정상화와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12대 아간강좌 총학생회가 학교측에 요구하고 있는 단위요구안 8개항은 작년엔 신설된 3개학과(중문, 신방, 광고)의 학생회 자치공간과 실험실습실(기자재 구입)을 작년 6월에 합의한대로 동국대4층에 즉각 마련해 줄 것, 무원칙하게 실시된 경상학부 새내기를 3백32명에 대한 자치공간을 즉각 마련해 줄 것, 그리고 94년도에 신설된 반도체학과와 전산통계학부의 실험실습실 마련계획과 실험기자재 확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신설학과 교과과정의 정례화와 교수님의 연차적인 확충과,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학부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간교육의 질적발전을 보장하기위해

전공도서관 및 전용 PC실을 동국대 4층에 마련하는 계획을 즉각 수정하고 진행할 것, 수업결산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개하고 94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특별장학금도 확대할 것 등이다.

이에 학교측의 입장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회수하고 유족한 자치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역풍한 논리를 내세우며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아간강좌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나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학교측이 제시한 회신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지난 13일 이후 지속적인 아침 저녁전전과 두차례에 걸친 비상-정거농성투쟁을 1차 총회하고 실천단위 집회총회에서 학우들과 우리의 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였으며 드높은 결의로 이후 투쟁을 결의하였다. 또한 지난 26일 제12대 아간강좌 총학생회 해오름마당에서 지난 정거농성투쟁을 1차 총회하고 실천단위 집회총회에서 학우들과 우리의 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였으며 드높은 결의로 이후 투쟁을 결의하였다. 또한 지난 26일 제12대 아간강좌 총학생회 해오름마당에서 지난 정거농성투쟁을 1차 총회하고 실천단위 집회총회에서 학우들과 우리의 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였으며 드높은 결의로 이후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후에 학교측의 아간강좌발전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과의 논의의 틀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유민우 (아간강좌 부총학생회장·영어영문학과)

## 동/문/칼/럼

### 더불어 사는 사회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 수 없으며 사회를 이루어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던 것

이다. 우리가 늘 먹는 쌀은 농부들이 땀 흘려 생산한 것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원료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복잡한 운송경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듯, 우리들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서로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 사회를 위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는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공

헌을 해야하고 남을 위해 봉사할 해야한다. 그리하여야만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자기 몫을 다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회에서의 자기역할과 몫을 수행하고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도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역할과 몫을 다 하는 것,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다.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 사회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남에게 신세만 지며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사람에게 기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사회도 이미 1만불시대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지만 진정한 선진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의식의 선진화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같이 갖게 될 때 더불어 사는 사회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기성세대들이 반성하고 노력해야지만 정의감과 열정, 진솔함과 순수함을 가진 젊은 이들이 앞장서 이끌어 나갈때 우리가 바라는 '더불어 사는 사회'는 더욱 빨리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사람 한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회는 앞다투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윤행순

(한국전력연수원장·행정학 65졸)



## 동대신문 창간 46주년 기념

### 동대신문에 한마디

보면 피곤함 몸 하루 폭 쉴 수 있는 일요일이 너무 기다려진다. 하지만, 막상 일요일이 되면, 월요일 아침이 더욱더 기다려진다. 왜냐하면 동대신문이 나오는 날이니까! 힘내세요, 동대신문

신형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따스한 봄날 동국인 손에 편안한 민족통국의 자부심을 실어줄 수 있는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월요일마다 나오는 동대신문이 46주년이라니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언론의 정도를 걸으시길. ▶내용이 항상 똑같은 것 같다.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도록 시사 문제를 더 다루었으면 좋겠다. ▶우선 동대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대신문에 바라는 것은 누구나 읽고 공감할수 있는 학

생의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소리를 좀 더 많이 실어주세요. ▶신문을 제작하시느라 무척 고생하십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창간을 축하합니다.

## 목격골

### 축하합니다

■경화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獨文 J-Y

■TIME 96 이쁘니 이진선후배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TME일도

■복박지게 기다렸지, 귀빠진 날. 명선야, 생일 축하해. -사회과학회활동

■불·미 연합M.T입니다. 축하합니다. -1학년 불·미

■동국문화회 문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학원재학생배일동

■회계학과 90학번 남현석 '웅'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예쁜이S

■항상 조용하신 상용이 형의 생일을 무지 축하합니다. --387기 수습들

■순환언니!! 늦었지만 생일 정말로 축하해요.

■재현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부현

### 수고하셨습니다

■문과대 해오름 준비-참여하신 명진인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대 통일문과대

■10일 맹우·노제에 참여하신 학우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석' 열사를 잊지 않습니다. -제28대 통일문과대

■공대 '96FAMILY, 투쟁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6사회부장

■동국대 검도부가 서울시 3·1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검도부 fighting

■화아산에 목빠진 국문과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모교지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국문과간초

■경상대 회계학과 M.T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무역인 여러분, 즐거운 M.T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95학번일동

■목문과 여러분 M.T 다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그리고...

■동국서도회! 전시회를 맞이하여 글씨를 열심히!

■K-C-C가 6·7월에 이대랑 조인된 M.T를 갓여요, 사랑스러운 그리고 즐거운 날이었네요. 다시 또 가고 싶어요. -공대공화계열대표

■백상중원단 총무부장겸 훈련부장 이윤상군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척부장오광석

■경민야, 열심히 사는 모습 너무 너무 보기좋다. -경미

■이불이 필요합니다. 장당 500~100W에 파시면서, 빌려주세요. -법대 비상대책위원회 015-511-6209

## 동/악/광/장

### 수고하셨습니다

■활동준비위원회 위원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무척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일하면서 재미있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문학과 고적답사팀, 수고 많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세요. -점일장

■詩동인 "시선" 16일부터 시화전입니다. 봄은 시의 향기와 함께 중첩에서 -시선 동인

■일어일문과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오니 일문인 꼭 많이 참석해주세요. -선전부

■UN클럽 50주년 기념, 국제관계학 심포지엄이 4.26~27일에 있습니다. -회장 백

■4월11일, 땅콩 이우니 22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밥 많이 먹고 키쫌라. 땅콩을 사랑하는 폭탄이 쓴다. -국문94

■백견이 첫 M.T를 떠났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특히 4기들 꼭요. -지니가

■UN클럽 50주년 기념, 국제관계학 심포지엄이 4.26~27일에 있습니다.

### 그리고

■용수야! 한국통신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 말라. -선인장

■군대가는 성하야 몸건강히 잘 다녀와라. 새·여·사는 내가 지키마. -91대

■부총학생 회장은 배짱인가(?) -H

■올봄 95학번 잘해! 파이팅! -올샘

■동대 미식축구 학교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재혁

■성건동 목마시당 위에 기거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회계4년들. 화이팅! -배짱이

■해·방·롬·짓 만세! 만세! 만세! 소공원준비 열심히 합시다. 신·일생X들 개(?)기반 주겨! -내가

■자대 회장님과 함께라면 죽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싶어요! -일반 여학우

■다가오는 17일날 수습활동비가 나온답니다. 형들, 기대해 주세요! -수소비

■ROTC 성격제한 패지합니다. -모탈

■항상 건강하고 밝은 마음. 밝은 웃음 영원히 간직하자. Beauty화이팅! -은자를 사랑하는 emperor

■비로소 그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 사랑의 힘입니다. -만남 오백원을 보내며 슈

■한문학과와 영원한 BB의 임용 고시 동반하기를 기원하며 열심히 공부하길 -김

■원철야! 근생활 잘해라. 모든것이 수월할수는 없지만 소중한 추억을 간직해라. -너를 좋아하는 선배가

■나는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너를, 너를 사랑하는 나를. -?

■지수야 언니가 문안도 못가고 너무 미안하다. 몸조리는 잘하고 있어? 조만간 언니가 날 잡아서 위로 방문할게. -현주언니가

■정원언니, 이 따뜻한 봄날 언니랑 차한잔 나눌 여유까지길 바라며... -주후배가

■동기들아! 열심히 노력하며 살자. -인선





# 창간

## 46돌

## 1950~1996

### 뜻깊은날

### 한 송이 조그만 꽃

한 때  
심각한 불  
면증에 시  
달린 적이  
있었다.  
하루에  
서너시간  
하던 수면  
시간이 한  
시간 이내  
로 줄어들  
고 그 고  
통이 매우



김형균

잔인한 고문처럼 나를 휘감았을 때도 나는 실상 그것이 불면증인 줄 몰랐다. 서너달이 지나서 체중이 격감되고 노리끼한 안색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신경정신과의사의 도움을 받자마자 '잠'이라는 병이 사라졌다. 온몸 구석구석이 화난 고슴도치처럼 예민해졌다. 머리를 감으면 두피가 아팠고 옷을 입으면 피부가 발진하듯 기승을 부렸다. 누우면 바닥에 닿는 부분이 들쭉서서 연신 뒤척이다가 일어나 있어야만 했다.

일주일 동안 잔 시간을 다 합쳐야 한 주시간이 될 상황이 되었을 때는 집의 전화번호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머리속은 블랙홀처럼 그저 어둠이었다. 긴 시간 7개월이 흘렀을 때 나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대화를 나눌 능력이 사라졌다.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주일 같고, 아니 한 달 같은 되는 것 같았다. 지구의 지름을 꿰뚫 듯 깊고 어두운 밤과, 창밖처럼 낡아빠진 햇빛을 피해야 하는 낮이 시계추처럼 똑딱거렸다. 그것은 절망이었다.

젊은 나이 서른에 망가진 스스로를 보았다. 검은 플라타너스처럼 커튼 친 방한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그렇게 그렇게 겨울을 냈다. 양치 쪽 키크에 조그만 꽃이 동오리를 짓더니 살짝 피었다. 힘을 내어 나온 산책 걸음에 우연히 그 꽃과 눈이 맞았다. 10센티 밖에 안 될 조그만 동오리 단추만한 꽃을 피우고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한나절을 그 안에 앉아 있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세상에, 그 절 어버린 가슴에서 아름답다는 느낌이 피어 오른 것이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어린 아들과 딸의 목소리가 즐겁게 느껴졌다. 아내가 고맷다. 그런 생각이 그런 사람이 하 나씩 하나씩 폭풍에 누웠던 비이삭이 일어나듯 샘솟아 내 손끝과 관절 사이로 스며들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는 기쁨을 느꼈다. 반년이 지났을 때는 글을 쓰고 여행을 하고 술을 마셨다. 세상이 다시 나에게로 왔다.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불지사 대표

동대신문은 창간 46주년을 맞아 당당히 대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본사에서보다 나은 신문들을 위해 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울러 본지 기자들의 일주일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 교수

## 청탁기사 줄이고 여론 수렴 늘려야

창간 46주년을 맞이하는 동대신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 보기위해 본고 신문방송학과 정하용(언론학전공)교수를 만나보았다.

"동대신문은 여타의 상업주의 언론과는 다르게 신중·해설·분석기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동약을 구성하는 3주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라며 본지의 위상을 언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발언을 열었다.

장교수는 본지에서 즐겨읽는 면은 7면과 6면의 '달하나 천강에'라며 "7면은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을 빨리 알 수 있게 하고, '달하나 천강에'는 교수들이 강의중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흥미를 가지고 보게된다"며 그 이유를 말했다.

이어 장교수는 본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들을 제시했다.

먼저, 신문은 독자들에게 읽혀질때 제 역할을 하게되므로 우선 재미가 있어야 하며 그러기위해서 독자들의 흥미와 요구 등을 많은 접촉을 통해 지면화하여야 한다고, 또한 유의한 신문이 되기 위해 학생과 교수들에게 필요한 즉, 강의실 변경이나 각단체·과의 정보 등을 알리고 대학내의 여론을 표현하고 이끌어가는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지의 지면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장교수는 "동대신문에는 청탁칼럼이 많은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각면의 기사들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색한 느낌을 준다"는 이야기를 했다.

끝으로 장교수는 "여론면 '열린글터'에 현재의 원고매수를 줄이더라도 보다 많은 독자들의 글이 실렸으면..."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이태훈 기자)

### 직원

## 동대신문은 '내 신문' '우리신문'

"고등학교때 백일장에 출전해 그때 처음 동대신문을 봤습니다. 군복무시절에도 이흥모를 과 여선배가 신문을 피라코박 보내는 노력으로 출간 접할수 있어 지금에 와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대신문 독자가 된지 20년이 다된 노동조합위원장 김윤길씨의 첫소감이다.

월요일이 되면 그는 꼭 2시간씩 동대신문을 정독한다. 신문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과 생각을 읽고 행정부분에서도 비판과 지적이 있어 동대신문 보는 일이 생활의 한부분이 됐다라는 것이 옛부터 지금까지 보아온 느낌이다.

그는 동대신문을 '내신문' '우리신문'으로 생각해 46주년을 맞은 본사에 축하하기보다 내가 축하받을 일이라며 가벼운 농담을 던진다.

"8면 전체 모두 정독하지만 종합보도면과 여론면을 관심있게 봅니다"

하지만 미래에 중요한 과학, 환경, 정보통신에도 관여해 고정면을 꾸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또 바라는 점이 몇가지 더 있다. 바로 기사의 심도있는 내용전달과 전자신문 준비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양화되는 느낌을 받지만 뒷받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나오는 신문이니까 객관적, 심층적 보도와 논평이 뒤따랐으면 합니다. 또 상당수 학생이 P-C 통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동대신문사도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P-C통신에 사건기사를 올리는 노력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갖추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생기자들에게 당부 아닌 격려의 말로 마무리를 했다. "머리로 쓰는 기자가 아닌 발로 쓰는 기자가 됐으면 합니다. 그 래야 객관적 판단으로 좋은 기사, 힘있는 기사를 쓸 수 있으니까요."

(한상용 기자)

### 학생

## 친근한 벗같은 동대신문으로...

본지의 첫면인 1면과 끝면인 8면을 가장 열심히 본다는 신

재영(언론문화연구회회장·철학3)군.

1면은 요즘 학내에서 가장 쟁점화 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

기위해, 문화면인 8면은 워낙 문화에 관심이 많아 즐겨 읽는다고 한다. 8면중 정재형 교수의 영화평 고정독자라고.

1면에 어떠한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면 그 신문의 성격을 알 수 있으므로 신문의 1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신군은 말했다.

"그 점에서 우리 신문에 별 불만은 없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문화를 다룬 8면에 아쉬운 점도 있다는데.

"신문을 잘 안보는 사람도 신문의 문화는 보잖아요. 저도 우리 신문의 문화에 항상 보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시는 분의 정확한 의도를 짐작 힘들더라고요. 약간의 재미도 더 첨가했으면 좋겠어요."

타대학신문과 비교해 학술관련 기사도 부족한 것 같다고 조심스레 덧붙인다.

한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아침에 신문을 펴는 것처럼 '우리'는 동약인으로서 '우리'의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기위해 확보는 당연히 읽어야 하는거라며 확보의 존재이유를 말했다.

"그런데 확보에 관한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전 어떻게 해야 확보가 많은 대중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동대신문사가 해야할 일 아닐까요?"

성심껏 조언을 해주는 신군의 얼굴에서 본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박민진 기자)

## 東大新聞

## "이렇게 만든다"

하늘을 바라본다. 아직 별이 지지 않은 새벽의 하늘은 정말 아름답다. 지금 나는 물결이 낮은 새벽 학교의 교정을 밟고 있다. 신문사가 있는 학생회관에 가면 내가 일요일이라는 빨간 날까지 고스란히 반납해 기뻐할 신문이 지금쯤 놓여 있을 터였다. 기자의 일주일엔 이렇게 시작한다. 토요일 조판에 들어가 토요일 밤을 피바세고 그것도 모자라 남들 다 자고 있는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신문 만들기...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보다 먼저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해야하는 교생 교생.....

하늘을 바라본다. 하얀 구름이 바람에 쓸려가고 있다. 이런 날 여자친구와 한적한 곳으로 놀러나 갔으면 하는 생각을 애써 지우며 난, 잔디밭에 누워 내가 만든 신문을 그 누

구부라도 더 열심히 보고있다. 그리고는 생각에 잠긴다. 화요일... 편집회의가 있는 날이다. 앞서 만든 신문을 보고 더 나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만든 정들은 신문을 날카롭게 비판도 해야 하며 다음에 나올 신문에 어떠한 기사를 어떤 방법으로 편집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서로의 의견과 이견이 무섭도록 부딪치는 몇시간의 편집회의가 끝나면 아이들 모두 탈진 상태...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이 얼마나 맑으면 동약로에 핀 개나리가 비쳐보인다. 마음이 잠기지 않는다. 그러나 난 내가 맡은 단과대나 분관에 있는 취재처를 돌아야만 한다. 난 취재수첩을 들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수요일과 목요일... 1, 2차 취재회의가 있는 날이다. 자신이 직접 돌아다니며 취재한 사건이나 일정기간 정해져 있는 출입처를 돌아보고 취재한 사건을 기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유하고 기자의 가치에 따라 기사로 실을 것인가를 결정한다. 기자가 모두 완벽해 모든 취재를 끝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취재를 해야 하는 괴로움이 생긴다. 다시 취재하라는 데스크(기사의 결정권한을 지닌 부장단)의 말... 제정...

하늘을 바라본다. 구름 한 점 없다. 어제 보다 더 맑게 피어난 개나리와 진달래의 유혹...이런 날은 어디 남산에 올라가 막걸리나 한잔하고 싶지만 오늘 난 어디에도 갈 수 없다.

금요일... 데드라인(기사 최종마감 시간)이 있는 날이다. 이 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사를 마감해야만 한다. 수업을 빼먹는 것은 예사 일이고 심지어 집에 가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다. 만약 그렇게 되면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교박한 숨 못자고 조판(기사를 인쇄 해 신문으로 만들어 내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엔 별이 잔뜩 떠서 그래도 다행히 외롭지는 않다. 오늘은 일요일... 조금전 조판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사람들의 발길로 물들은 새벽녘의 교정...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맡은 이 길에 자랑스럽다. 동대신문을 끝내 지켜 보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 (김삼만 기자)

새로운 향기의 세계가 시작된다

유용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향이 좋은 커피  
**맥심 리치아로마**

까맣힌맛, 깊은 향기 원산 고급원두로 만들어진 리치아로마의 그 새로운 향기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깊고 깨끗한 향기를 한 번 더 흡수하는 리치아로마 공법으로 탄생되는 맥심 리치아로마. 강한 듯 부드럽게 조화된 리치아로마 특유의 향기는 지금까지의 인스턴트커피로는 꿈꿀 수 없었던 바로 그 향입니다. 향이 좋은 커피, 맥심 리치아로마.

"향기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신제품

리치아로마는 "풍부한 향기"를 뜻합니다.

한상용

방송인 한상용

東西食品

◆기획시리즈<마지막회> - 문단기 저항문학의 성격

# “민족모순의 복합성으로 저항대상 찾기 어렵다”

실존주의-민족주의-농민·노동문학 순으로 변천

한국근대문학을 크게 두시기로 나눈다면 첫 시기는 식민지 항일저항문학의 시기로 두 번째 시기는 문단기 민족문학의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의 한국문학은 실질적으로 문단시대의 모순 하에 놓인 문학임이 분명하다. 이 문단시대는 식민지시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연장선에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이 두가지 모순이 서로 혼재됨으로써 나타난 분단체제 모순이 주요모순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대이다. 1945년에서 1948년의 기간은 역사적인 연장선에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해결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요인이었다. 특히 남한의 경우에는 개발독재로 인해 야기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로 활용되어 왔고 이러한 분단체제를 전면에 내세운 독재정부의 이데올로기는 60년대 중반까지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이 성장하는 기회를 말살시켜왔다. 그러나 60년 4.19를 계기로 민족문학의 전통이 다시 나타났고 이 민족문학은 군사정권에 대한 반독재투쟁을 병행하면서 민주, 민족문학으로 그 성격을 굳혀갔다. 따라서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

까지의 저항문학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민주와 정치적 자유'를 지향하는 문학이었다. 70년대 부터 새롭게 나타난 분단 소재 문학의 출현은 '민족모순'의 실체가 곧 분단임을 인식한 새로운 저항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일을 지향하는 문학이아말로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는 문학이라는 자각을 통해서 '분단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문학이 공식화된 것이 이 시기이다. 또 한편으로는 70년대 후반부터 개발 독재로 인한 '산업화'의 추종과 그 문제를 다룬 일련의 문학작품들이 출현하는데 소설로는 황석영 '객지' '삼포가는 길', 윤희길 '아홉살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이 있고 시에서는 박노해 '노동의 새벽'이 80년대 초반에 출간됨으로써 노동문학의 새 장을 열게 된다.

그 역량의 실체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은 '민중, 민주, 민중'이라는 세 가지 구호로써 요약되는데 70년대와 80년대의 저항문학도 이 세 가지 주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단시대의 문학은 그 모순의 실체가 복합적인 만큼 저항의 대상 또한 다수이며 불투명하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모순된 현실

문학이 한동안 성장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는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문단시대 남한사회의 저항문학의 흐름을 요약하면 50년대에는 저항의 대상을 찾지 못한 채 '저항적 몸짓'만 남은 실존주의 문학이 주를 이루었고,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최인훈 '광장' 이호철 '판문점' '어느 이발소에서'를 출발로 해서 김지하 '오적' 윤희길 '잠마' 김원일 '노동' 임철우 '아버지의 땅', 신경림, 조태일, 이성부, 박재구, 정희성, 김남주의 시 등 민주와 정치적 자유 그리고 분단극복을 주장하는 민족, 민주 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민중문학이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민문학과 노동문학으로 분화되면서 또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다. 여기에는 황석영, 윤희길을 시작으로 정화진, 정도상, 방현석, 김한수, 김영현 등의 작품으로 이어지며 시에서는 박노해, 백무산을 꼽을 수 있다.

### 민족문학의 성장을 방해한 반공이데올로기

을 해결하려는 몸짓 자체가 상호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남으로써 저항의 주체가 서로 분화되는 현상이 생겼고 지배이데올로기가 이러한 주체들의 분열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체제수호의 논리로서 위장된 반공이데올로기가 '분단극복을 지향하는 민족문학의 성장을 방해했고 '민중문학'과 '노동문학'을 탄압하는 발미가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70년대 후반까지 급격히 성장한 민족문학권에 들어서서 민중

### 70년대 저항문학은 통일지향성 민족문학

결국 70년대 후반의 남한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모순을 해결하고

### 달 하나 천 강에

### 교수의 사회봉사



경주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제자로부터 오랜만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안부를 묻고 조심스럽게 드림 말씀이 있다면서 고수철도 경주 통과에 대한 사회활동을 자제하였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유인즉 사업자 경주 시내 상공인들과 자주 자리를 같이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에게 대한 비난을 듣고 있기가 참으로 괴롭다는 것이다. 제자인 입장으로서 스승의 입장을 두둔하고 싶으나 분위기가 상 어렵고 자기도 솔직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사업상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심 통과 노선의 폐해를 설명하고 외곽 우회노선이 경주의 앞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앞장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설명하니 그도 "선생님 소신대로 하십시오. 교수들이 올바른 소리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하고 오히려 격려를 하려 든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나의 처신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하고 생각하여 보았다. 강의 준비도 제대로 못하는데 허둥대면서 강의실을 찾곤 하는 내가 오지랖 넓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그 동안 좋은 뜻을 가진 몇몇 동료 교수들과 같이 이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사회단체를 결성하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았다. 그러나 지역의 특정 집단과 이해 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하여는 입장을 달리하는 측의 음해성 비난을 참아내기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었다. 지역이 워낙 좁은 탓에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힘이 들고 대학내에서조차 금지 없게 바라보는 시각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우리는 흔히 대학을 가리켜 사회를 지키는 양심의 보루요 정의의 잣대라고 한다. 그래서 무슨 위원회를 설치할 때면 의례히 교수를 초빙하여 위원으로 임명한다. 따라서 대학 교수가 참여한 위원회는 권위가 시계 되고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 교수 만큼 현명하게 처신하는 집단은 없다고 하기도 한다. 머리가 좋고 공부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영리하게 처신을 잘한다고 할 처럼도 들린다. 남이 듣기 싫지 않을 정도로 올바른 소리를 하면서 자신의 위신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집단이 대학교수가 아닌가 싶다. 그러다 보니 교수들의 사회 봉사는 행동과 실천은 적고 말만 무성할 때가 많다.

새로 제정된 교원업무 평가규정은 사회 봉사 활동 영역을 두어 점수화 하고 있다. 이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사회에 봉사하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평가 항목과 평점 기준이 국가 기관의 정책자문위원과 각종 단체의 회장, 임원 순으로 가산 점을 주어져 있다. 교수 업무 평가에 봉사 영역을 두어 장려한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생각이다. 그러나 평가의 잣대가 무엇을 봉사 했느냐가 아닌 얼마나 높은 직책에 있느냐에 있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규범으로는 어딘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우기 이 사회 최고의 지성인임을 자부하는 교수의 사회봉사가 점수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우습지만, 봉사 직책의 높고 낮음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점수로 환산 되어야만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대학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보다 실천적인 사회봉사를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

강 태 호 자연과학대 조경학과 교수

### 단편적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난

### 폭넓은 범위의 토론·연구문화 지향

다소 딱딱한 분위기일 것이라는 '선입견과 연구의 자세를 취한 모습을 상상하며 이번주는 학술분과를 찾아가 보았다.

먼저 학술분과에는 문화유적을 답사, 탐구하며 민족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연구하는 '고적연구회', 역사, 문화, 시사문제 등에 대해 연구, 토론하는 '겨레사랑(민족문제연구소)', 중국의 문화를 연구하며 우리 문화와 비교분석을 하는 '한중학술연구회', 현대인의 필수인 컴퓨터 동아리 'DUCC', 영어실력향상을 위한 'Newsweek'와 'Time' 등 6개동아리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학술분과의 동아리 중 특색상 대외적인 활동이 미흡한 단이론 흥보에서 미약하다. 이에 분과장 이경석(겨레사랑)군은

"학우들과 보다 많이 만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홍보와 연계성 도 모에 힘 쏟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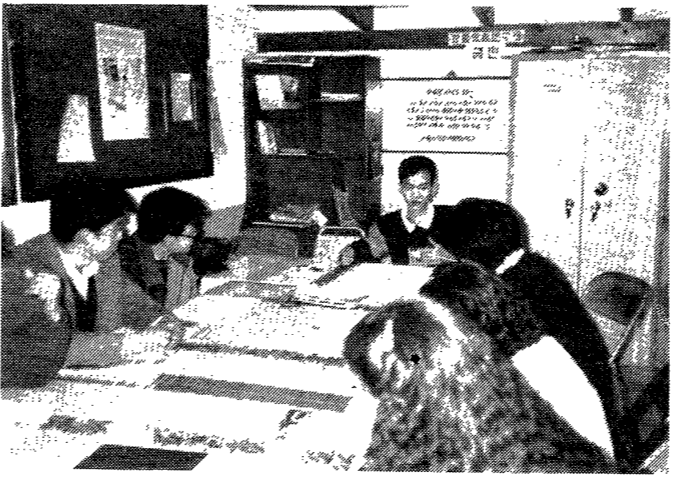
그러나, 컴퓨터 동아리나 영어학습을 하는 동아리는 특별한 흥보없이도 많이 찾고 있으며,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정보화, 국제화 시대속에서 컴퓨터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동아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 현실때문이라 보아진다. 'DUCC'회장 정의준 군은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컴퓨터는 배워야 하며, 그리고 동아리에서는 취미생활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

한편,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동아리 중 겨레사랑의 한 학우는 "취업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하



### 동아리 문화임기

### 경주캠 학술분과



△학술분과는 자기정체성을 찾는 부류와 미래지향적인 부류 두가지가 있다.

# Dong Guk Conversation Class Program

## 東國학생들에게 드리는 영어회화반 수강특혜! 학생 스스로 반편성, 수업시간도 스스로 결정!

### “4년 후, 희망찬 당신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대학생활 4년간 무엇인가 남다른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의 자기선택 여하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뒤바뀔 수 있는 기묘한 동시에 자기성취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후의 모습은 여러분의 무대도 우리나라가 아닌 전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쟁상대 또한 세계입니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기회를 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헤럴드학원에서는 동국학생을 위한 영어회화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학교에서 학원까지 불과 10분거리, 저렴한 수업료,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 반운영을 하는 동국학생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이런 좋은 조건을 졸업때까지 꾸준히 활용한다면 영어회화를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동국인으로서의 긍지와 함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선도적인 인재로서 탄탄한 미래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이 망설이는 동안 경쟁상대는 멀리 달려나가고 합니다. 경쟁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특히 회화공부에 전념하십시오. 35년 전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코리아헤럴드로 오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야 좋은 결과가 있고, 영어회화 또한 좋은 학원을 선택해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코리아헤럴드학원에 등록하면 자연스럽게 회화실력이 자라나고 영어가 되고 4년후에는 명망한 세계인의 모습으로 성장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미래설계를 위한 가장 뜻깊은 시간이 되었كم 보람있게 시작하십시오. 4년이란 기간은 길고도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금방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4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 20여명의 훌륭한 미국인 강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시중 어느 학원보다 좋은 수업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 실력향상위주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코리아헤럴드 어학원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옆

# 727-0271~5

#### 동국 등록생에 드리는 특전

1. 청취교육(L/C)시설 무료제공  
듣는 교육은 말하는 만큼 중요합니다. 미국인들의 발음 제대로 알아 들어야 합니다.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청취교육을 원하면 언제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2. 학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과목을 별도로 신청할 시는 수강료의 10%할인혜택 부여
3. 자습실 제공 (매일 09시~17시)  
학교수업이 없을 시는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자습실로 제공합니다. (교실 26개)
4. 2년간 매일 등록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 수업료 및 회화능력 인증서 발급(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함)
5. 학생 15명 이상이 다른 과목(영어 또는 영문법, 영작문, 독해 등)을 별도로 듣고 싶을 경우 별도의 반 운영 함

반운영 내용	반편성 및 일정
<p>정 수 인원: 13명</p> <p>수업 일: 초·중·고 1, 2, 3단계</p> <p>수업 시간: 월 1회(월, 수, 목) 주 3회(화, 목, 토)</p> <p>수업 시간: 1월 90분</p> <p>수업 시간: 1월 18시간</p> <p>수강료: 월 45,000원</p> <p>교재: 미국인(Native Speaker)</p> <p>교재: Spectrum(교재대 9,000원)</p> <p>프로그램 내용: 영어회화의 완성을 위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복합적으로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과목별 반편성 할 때 과목별 수강료와 영인 책상</li> <li>● 4월18일까지 KH학원에 명단제출</li> <li>● 각 반에서 편리한 시간대로 임의로 선택하여 수강</li> <li>● -오전7시~오후10시 사이에 자유선택 할 - (회화수업이 없는 시간을 택해 수업료 포함)</li> <li>● 동국반편성: 김민정</li> <li>● *회망자는 위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바람 전화 727-0274</li> <li>● 4월 22일 등록마감, 수강료 납부</li> </ul>

# '북한산에서 동국기상 떨치자'

## 기존코스·다양한 상품준비

4·19기념 등산대회의 일정이 코스변경과 함께 확정, 오는 20일 이뤄진다.

당초 예정했던 그린파크에서 일통사·우이암·오봉샘터를 거쳐 도봉공원까지의 코스는 행사담당직원의 답사 결과, 거리가 멀고 등산로도 매우 험한 것으로 나타나 작년코스인 △4·19탑 △대동문 △북한산 △우문 △하루재 △조선사 코스로 확정했다.

동국인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

하고 △4인 1조(학과, 학부,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혼성조 등 자유롭게 구성)와 △단체 1조(50인 이상으로 교수 2인 이상 참가)로 신청을 받으며 오늘(15일)부터 19일까지 학생과와 산악부에서 접수받는다.

한편, 시상으로는 최우수상(1팀), 우수상(3팀), 자연보호상(2팀), 장기자랑상(5팀)이며, 서울-하와이 왕복 항공권을 주는 최고 행운상 및 행운상(10명)도 수여한다. 아울러,

단체상으로는 동국 90주년 기념상(1백만원 1팀), 동국 발전상(5십만원 2팀), 동국사랑상(3십만원 3팀) 등 각종 시상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동국인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 본교 출신 총선서 13명 당선

## 신한국당 6명·국민회의 3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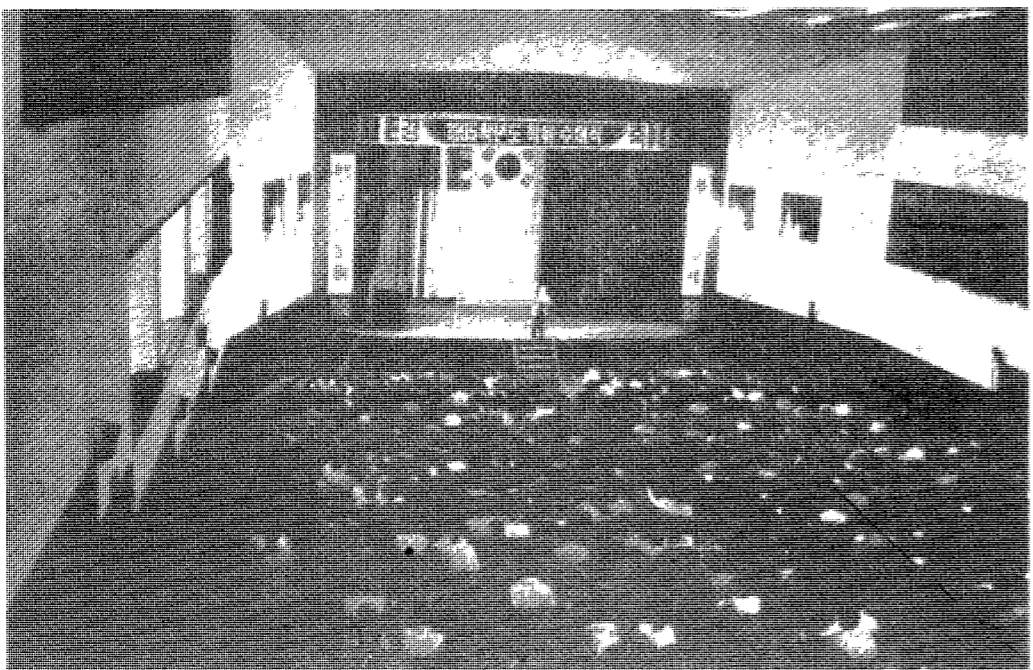
지난 15일 치러진 제15대 총선에 본교 동문 및 대학원생 13명(전국구 4명, 지역구 9명)이 당선됐다.

각 당선자들을 소속별로 살펴보면 △신한국당=6명 △국민회의=3

명 △민주당=1명 △자민련=2명 △무소속=1명 등이다.

각 당선자와 선거구는 아래 표와 같다.

성명	출신학과/대학원	선거구	소속정당
권노갑	53 경제	전국구	국민회의
김기재	93 대학원박사	부산해운대기장읍	신한국당
김영구	62 경제	서울 동대문을	신한국당
박상규	60 국어국문	전국구	국민회의
신영권	문화예술대학원	전국구	신한국당
윤철상	93행정대학원	전북 정읍	국민회의
이규원	65 법학	충남 서천	자민련
이원범	65 행정	대전 서갑	자민련
정재철	52 정치	전국구	신한국당
최형우	63 정치	부산 연제	신한국당
황규선	95 대학원 박사	경기 이천	민주당
남정우	59 경제	수원 팔달	신한국당
김일운	92 경영 대학원	경주 갑	무소속



◆넓어서 좋다... 학부제·편입학 등의 영향으로 학부 및 교양 인기 강좌는 수강생이 만원이 다. 사진은 지난 12일 '불교와 예술' 강의 모습. (박대용 기자)

# 춘계 불교유적 답사

망월동 묘역 참배도

불교학과내 소모임 불교유적답사 학회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지리산에서 춘계불교유적답사를 갖는다.

인원은 80명으로 지난해까지는 불교학과 학생만이 참가했으나 학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불교대 전체로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

일정은 지리산 소재의 사찰을 답사하여, 마지막 날 20일에는 4·19혁명을 기리는 뜻으로 광주광복동 묘역을 참배한다.

# 경주캠 김윤호군 도움필요

## 헌혈증서·성금모금 활발

'급성 임파선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경주캠퍼스 야간 강좌 경영학과 4학년 김윤호학생을 돕자! 임파선 백혈병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성모병원에서 투병중인 김윤호학생을 돕기 위해 경주캠퍼스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장영남·경영4이하 야간총학)와 야간경영학과 학생회에선 지난 2일부터 헌혈증서기증 및 모금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일 RH+ O형 경주캠퍼스 경영학과 16명의 학생이 서울성모병원에서 조직기증을 받아 전원합격 한 것을 비롯해, 헌혈증서는 현재 8백여장이 기증되어 있고, 모금은 3백여만원이 모여졌다.

현재까지 성금을 계속 모금했지만 수술비용이 2억원인 것을 고려해 수술비 마련을 위한 성금모금운동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관련해 경주캠퍼스 야간총학과 야간 경영학과에선 중간고사가 끝나는 시기에 성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헌혈증서 기증도 대규모적자와 연계하여 개인적이 아닌 과차원으로 확대해 진행할 것이다.

한편, 회장 장영남군에 의하면 "이부대 교학과에선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할 예정이며, 학생과에서도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성금마련 운동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생자대, 식목일 행사

윤길산 연습림 오는 17일

생명자원과학대(회장=장광배·식자4)는 오는 17일 윤길산 연습림에서 식목일 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생자대의 단합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치러지는 이 행사는 당초 10일로 예정됐으나 동맹휴업관계로 연기되었다.

일정은 9시반에 학교를 출발, 오전에는 나무심기, 오후에는 체육대회로 이어진다.

# 학복위, 무료 방소개 사업실시

## 설문조사 거쳐 내달께 주선예정

지방학생들의 하숙·자취 선정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학복복지위원회(위원장=서동욱·무역4 이하 학복위)는 '무료 방소개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15일)부터 '살림터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기반으로 학우들의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실질적으로 5월경에 살림터를 주선할 계획이다.

설문은 주소, 금액, 난방장류를 비롯한 기타조건과 좋은 점, 나쁜 점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 총학, 학자투 현안중 요구안 전달

## 논의재개 시발점될 듯·학교 오늘 답변예정

총학생회(회장=유병문·불교4)는 지난 9일 등록금문제와 관련, 공간문제·학부제·교육환경개선·교육재정확보 등 96년 학원자주화투쟁의 현안을 바탕으로 한 요구안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총학 출범식이 치러진 지난달 28일 각 차·실 집기를 도서관앞으로 끌어낸 이후 학교측과 총학간의 뚜렷한 논의지리를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요구안 제출은 논의재개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요구안 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등록금 구성과 예결산 공개의 정례·공식화 △96년 부당한 등록금 인상분의 실질적 환원 △진행되고 있는 공간배치의 백지화와 논의구조 마련 △실질·강의실 확보, 교수확충 등 학부제 따른 제반 여건 강화와 논의구조 마련 △도서관과 전산망구축 및 장서관리 △야간강좌 수업결손에 따른 대책마련 △정부에 교육재정 5%확보를 촉구할 것 등이 제시됐다.

학교측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오늘(15일) 총학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일일호프로 약 30만원의 수익금이 모아졌다.

한편,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학생은 약 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1학기 최종등록 마감

## 등록률 99.4%

96학년 1학기 등록률이 99.4%로 지난 9일 최종 마감됐다.

총무처(처장=염준근·통계학) 경영학과(과장=박환오)에 따르면 등록마감을 앞두고 재학생들의 등록이 갑자기 증가했으며 9일 현재 마감된 등록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학생은 약 7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소년학교 기금마련 행사

## 결손가정 자녀위한 봉사

봉사동아리 ELF(회장=목재근·체교2)는 '소년학교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를 지난 12일 빅스톤에서 열었다.

사랑과 교육의 실천으로 사회봉사에 기여하는 것이 창립 취지인 ELF는 그 일환으로 매주 두번 마

포구에 위치한 소년촌을 방문,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가르치는 소년학교를 열고 있다.

소년촌은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결손가정 아이들이 모여사는 곳이다.

이런 일일호프로 약 30만원의 수익금이 모아졌다.

# 동아리 예비감사 실시

## 형식적 감사 탈피

동아리연합회(회장=최동현·국교4)는 지난주 동아리의 실사파악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예비감사에 들어간다.

기존의 형식적인 감사탈피를 위한 예비감사는 각 동아리들의 인적 구성과, 정기적 활동, 활동의 목적의식, 재정상태, 졸업생과의 관계 등의 내용에 관한 기준안을 오는 15일 마련,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예비감사의 결과는 동아리연합회 총노선과 사업계획에 참조될 예정이며 전담회때 결과보고가 있다.

# 학과소식

식물 자원학과 4월 13일 10시 만해광장에서 북학생졸업생 운동회를 개최했다.

특이 독문학과 12, 13일 새터에서 연합 M·T를 가졌다.

철학과 12일 부터 2박3일간 산정호수에 연합 M·T를 개최했다.

국어 국문학과 화야산에서 13, 14일 연합 M·T를 가졌다.

# 학·전·무·대

음복주

○...어우, 왜 이렇게 많아? 뭐가 그렇게 많나구요? 사람이죠. 아직 초저녁인데 후문앞 술집에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늘은 4월 10일 동맹휴업인데, 고노수석군장례식인데, 그게 술마실 일인가? 몇몇학우가 죽어가고 수많은 학우들이 시민에게 진상을 호소하며 시위하는데, 동학의 한구석에선 향락에 젖어있나니오.

옆에서 지켜본 한 학우가 말하길 "동맹휴업이 술집에서는 동맹성립?"

박을 뚫고

○...어두컴컴한 방에 한줄기 빛이 새어 들고 있다.

감싼한 어둠을 뚫고 비수처럼 쏘는 빛을 감상하는 한 학우

그의 손이 스위치를 올린다.

환해진 방.

"보셨죠, 이게 부실공사잖아요, 어떻게 이정도밖에 금이 갈수 있는거예요?"

장소는 학생회관.

자포=자복(?)

○...개강한지 한달, 강의실안에서는 화려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다들아니라, 개강초기에는 강의실에 앉을 자리가 없어 잠시나마 서서 수업 받으며 공간확보투쟁을 외쳤던 학우들이 많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강의실 구석구석 비는 자리가 많아 따뜻한 봄날에 은근한 썰렁함을 느끼게 한다고

이런 화려한 풍경을 바라보는 최전무대자 울 "등록금, 공간확보 등 많은 투쟁을 외치는 학우들이 자신들의 의무투쟁은 잘하고 있는건지..."

빠빠용의 영광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민주당의 참패, 김대중 국회의원의 총재의 좌초, 정치신인의 대거진입 등 여러가지 이변을 낳았지만, 이중에 참변(?)도 있어 집중되는데.

육중에서 출마한 허희평씨등 5, 6공화국의 잔재들이 바로 그것.

그들이 지역별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옛 군사정권의 잔재를 제거하는 요충, 그러한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문제가 있었던게 아닌지.

이에 광주시민 한마디, "영어의 몸이 영광의 몸인가?"

4월 17일 개관합니다.

# 한국 최초의 디지털 도서관- LG상남도서관입니다

LG상남도서관은 화학, 전기, 전자를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회원제 도서관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 708-3717)

**회원대상 및 자격**  
이공분야 대학교수 및 대학원생, 정부 출연 연구소 및 기업 연구소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분

**회원가입 방법**  
위의 회원자격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생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 증명서 등)와 함께 LG상남도서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후 ID를 부여합니다. (가입 신청서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GO LGE, 천리안 LGU, ARS(708-3700) 등을 통해 제공합니다.)

**서비스 요금**  
없음. 단, 자료전송에 따른 통신료 및 복사비 실비는 이용자 부담

**이용시간**  
●온라인 이용 : 연중 무휴 24시간 가능합니다.  
●방문이용 : 오전 9시~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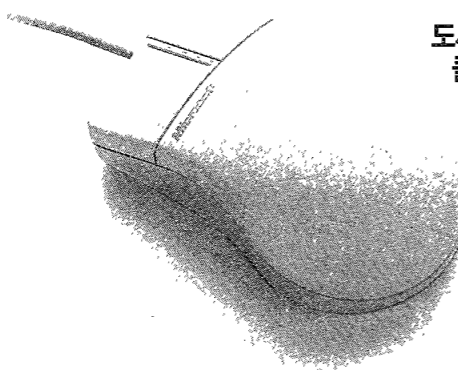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36 (창덕궁 옆 현대건설사옥 뒷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 이제 손가락 하나로 도서관에 다녀오십시오.

도서관에 갈 필요없이 클릭 한 번으로 최신 학술정보자료를-

LG연립문화재단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도서관 LG상남도서관- 학술 잡지, 국제 학술회의 자료에서 비디오 자료, CD-ROM자료 등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급정보자료를 PC를 이용하여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남(上南)은 LG그룹 구자경명예회장의 아호(雅號)입니다.

